

생명의 말씀

주님을 따르려면

(마 4:18-22)



박영광 목사

- 경기지방회 중경회장
- 6포 병역단 민간성직자회 회장
- 연천순복음교회 담임

1.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는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슈마이커의 조사에 의하면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곁에 찢려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사기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순교를 당했고, 누가는 감람나무에서 목 베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순교했고, 바돌로매는 회형을 당하여 순교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어 순교했고, 유다는 화살을 맞아 순교했으며, 막다이는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영광을 찬양하며 주를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로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2.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 8:31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 15:4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고사될 뿐이요 나를 떠나서 내가 살아 있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매이더 장군은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3.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주신 것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로서 끊임 없는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빌 2:5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2)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 6:33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 황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딤후 4:1-2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4) 성령충만해야 합니다. 행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5)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는 1.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요 2.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요 3.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정

박영률 목사 난빛문학상 수상



박영률 목사가 제1회 난빛문학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소속 난빛문화원이 주최한 제3회 난빛축제에서 이 상을 받은 박영률 목사는 마포분원 회장으로 마포문학상을 제정하고 '사상과 문학' 발행인으로서 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해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CTS 신학포럼 '선교신학' 주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욱, 이하 ACTS) 부설 신학연구소가 주최한 '제4차 ACTS 신학포럼'이 10월24일 본교 강당에서 'ACTS 신학공론과 선교신학의 중심진리'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ACTS가 펼치고 있는 '신학공론 운동'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복음 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고 구현하려는 운동이다.

성결신문사 사장에 이철구 장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동석 목사) 제8대 성결신문사 사장에 강서교회 이철구 장로가 취임했다. 10월31일 오전 총회본부에서 열린 이·취임식은 예배, 이임식, 취임식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부총회장 김원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예성 여전도회 전 국연합회 성가대의 찬양 후 총회장 이동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컴패션밴드 10주년 기념 콘서트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 목사)은 12일 서울 서초구 바우뎀로길 더케이아트홀에서 '컴패션밴드 10주년 기념 앵콜 콘서트'를 진행했다. 가수 황보, 심태윤, 김범수를 비롯해 홍보대사 가수 선이 지누와 함께 출연했다. 컴패션밴드는 발라드 가요 무용비보잉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무한 권력은 무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바라지도 않았으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추락하는가? 모든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우울하기까지 하다.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 '실망' 하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던 생각이, 대통령의 입으로 실로되는 것을 보면서 무너졌다. 그간의 언론투보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 또는 정말 사실일까에 대한 의문들도 부질없이 무너졌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크게 무너져 내렸다. 아니, 절망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사적(私的)으로 가까이 있던 사람이 국정에 관여한 흔적이 분명해지며, 거기에 상상하

기 어려운 범법적 비리까지 드러난 마땅이라, 어떤 말로도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여성 대통령의 등장을 자랑으로 여겼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보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우리 정치가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화의 진입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사태는 순수하지 못한 정치권의 선동과 대치와는 다르게, 시민들로 하여금 연일 분노케 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최종 책임까지를 요구하는 상황은 매우 곤혹스럽고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당장 대통령 한 사람이 물러나는 문제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엄위한 현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가안보는 정치적인 수사(修辭)가 아닌, 그야말로 국

민생존의 문제이다. 경제도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19세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열강들의 각축장의 재판(再版)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직급의 위험한 국제질서와 관계를 절대로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국정최고의 책임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반드시 국가적 혼란은 피해야 한다. 현금(現今)의 정치사적 혼란이 큰 비용을 치른 후에 얻어지는 것이려면, 국가와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전락시킬 것이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스스로 책임감과 함께,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수사 당국에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

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것이 약속대로 지켜지고, 누구도 사사로운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사라지며, 국가 원수 주변에서 이권을 쥌기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란다.

풍전동화(風前)와 같은 조국 독립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던 피아테(피아테)의 '조상들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두고 명예' 하던 진정, 애국 애족의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를 찾고 싶은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가를 돌아볼 일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대 사람들과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을 보였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망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 울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중수(重修)하였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한 것,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결과를 닦고, 원망하고 사비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부 개인적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룩한 큰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 어찌 일반 정치가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먼저 하겠는가? 요나의 말처럼,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국민들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분께 자혜와 능력을 구하자. 지금은 애국의 외침이 필요한 때이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이다.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 는 가족들의 선택임 >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